

# Style 1 조선일보

FEBRUARY 2021  
vol.216

Salvatore Ferragamo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IWC PORTUGIESE.  
THE JOURNEY IS  
YOUR DESTINATION.



고객님의 국제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세요.

IWC.COM/MYIWC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42. Ref. 3442:** 시트를 팽팽하게 조절하며, 당신의 손은 타류를 단단히 움켜잡니다. 바람을 타고 뱃머리가 천천히 회전하며 배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WC 포르투기저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명확한 목표를 가진 야망가들의 시계로 선택 받아왔습니다. 힌터 포켓 워치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1930년대 후반 개발된 간결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은 경도를 계산하기 위한 항해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포켓 워치의 스타일리쉬한 헤리티지와 항해 기구로서의 정확성과 가독성이 결합된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적인 시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계를 소유한 행운의 주인공들이 자신 있게 새로운 지평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다음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IWC.COM/KO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82 2 3440 5876

IWC  
SCHAFFHAUSEN



1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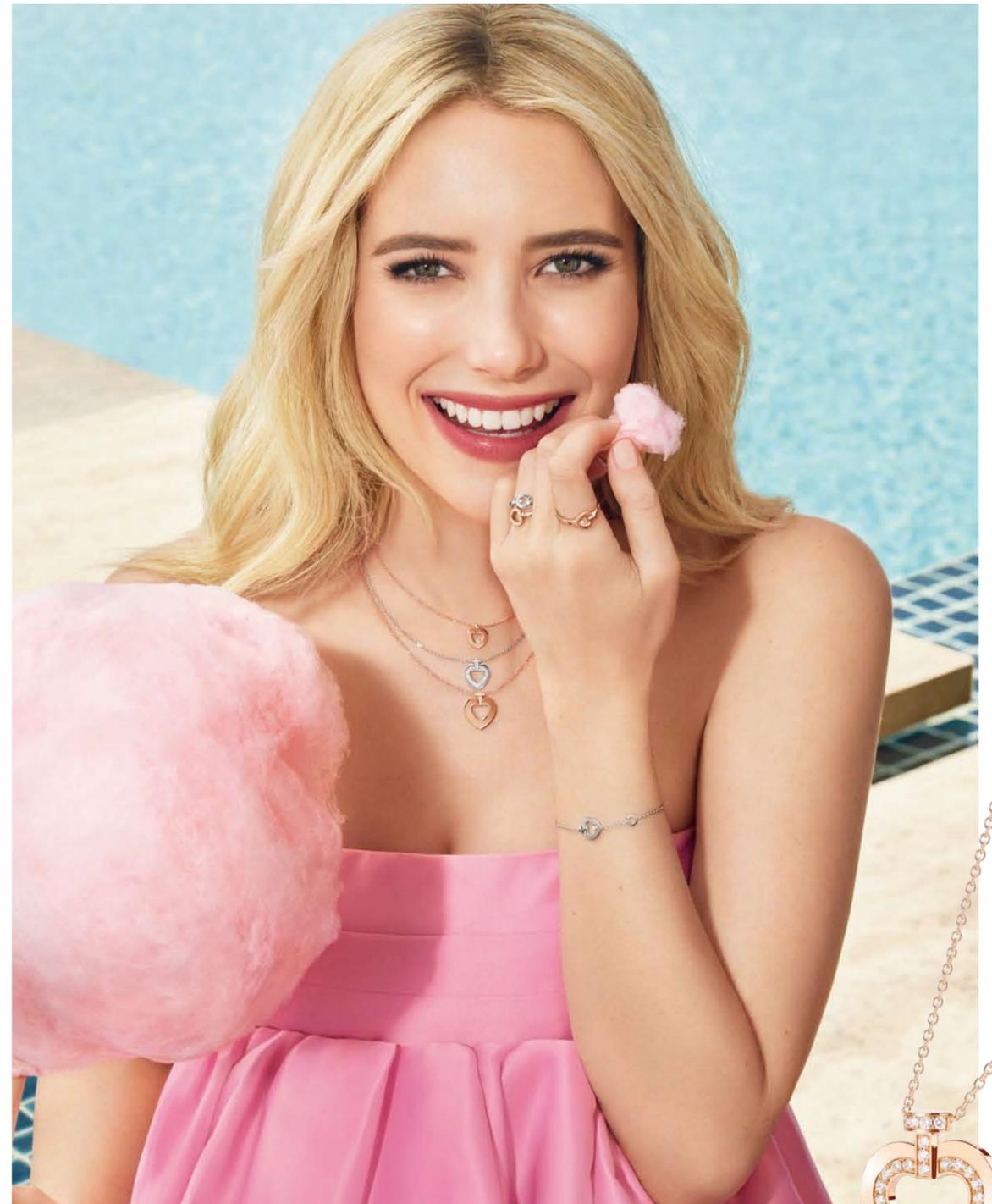
이탈리아 패션계의 헤라클레스를 담은 아이코닉 슈즈 바라. 모던하게 재해석한 바라 슈즈가 2021 S/S 헤트트렌드 그린, 랩스터 무스, 테크니컬러 멜로 등 컬렉션의 시즌별 컬러를 입혔다. 굽 낮은 슬림백과 발레리나나 슈즈, 두 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22



12

- 13 **HAPPY TOGETHER** 함께하면 감동 두 배, 선물로도 예뻐로도 좋은 주얼리 셀렉션.
- 14 **차별하고, 다양하고, 위대한 그녀들** '윤석남'은 미술관 신책을 좋아 하는 이틀이러면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이다. 주요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 작가이고, 한국 여성주의(feminism) 미술의 대모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 다분히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하니까. 그 이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던 <내 나니 여자리>라는 전시를 보다가 마주친 '우리는 모계 가족 (2018)'이라는 설치 작품이었다. 굳게 주름 잡힌 창백 커튼을 배경으로 5명의 여성과 한 마리 강아지가 사이좋게 모여 있는데, 윤석남 작가 본인과 그녀의 어머니, 언니와 동생, 딸, 그리고 딸이 키우는 암컷 강아지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명을 접하고는 절로 미소가 자아졌다. 2주 쯤 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녀의 아틀리에를 찾았다.
- 17 **PERFECT PAIR** 남다른 취향을 반영한 웨딩 스타일을 완성하도록 도와줄 감각적인 웨딩 슈즈 & 액세서리 스타일링 제안.
- 18 **BEHIND THE ICON** 사넬의 N5는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열정가 특한 여인의 삶을 향으로 표현했다.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은 N5를 통해 우리는 마드모아젤 사넬을 기억한다.
- 20 **MARVELOUS MOMENT** 진귀한 생분과 최첨단 과학이 만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선사한다.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절정의 순간을 표현하는 꽃처럼, 에너지를 가득 채운 광채와 탄력 있는 피부로 최고의 시간을 되찾게 해줄 럭셔리 뷰티 아이템.
- 21 **SENSUAL TOUCH** 겨울 끝자락에서 느끼는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기.
- 22 **EVER THINE, EVER MINE, EVER OURS** 작아서 더욱 특별한 우리만의 시간. 프라이빗 스몰 웨딩을 위한 로맨틱 드레스 룩.
- 32 **ETERNAL TIME**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연인을 위한 IWC 스포트하우스의 타임피스.
- 33 **THE TIMELESS ELEGANCE**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하이 주얼리 반클리프 아펠.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를 아이코닉한 비즈 프레임과 진귀한 천연 스톤으로 재해석한 알함브라(Alhambra) 컬렉션은 동시대적인 우아함의 결정체다.
- 34 **VIVA LADY** 마치 사랑스러운 여인을 보는 듯 온화하고 아름답다. 로 맨틱 비바 컬렉션.
- 35 **ROMANTIC DAYS** 돌인의 소중한 시간을 오래도록 향유하고 싶은 연인을 위한 커플 워치.
- 36 **LISTEN TO PERFUME** 향을 맡아보면 빠져들고, 스토리를 들어보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궁극의 향수, 팬탈리곤스.
- 37 **SWEET HOME** 향기롭고 인력한 공간을 완성해줄 홈 프레지그런스 셀렉션.
- 38 **EDITOR'S PICK**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에 지친 피부에 위 한 극약 처방.



# Style 조선일보 Issue.216 February 2021

LIVE THE JOY  
**FRED**  
PRETTY WOMAN COLLECTION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일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 BRIGHT YELLOW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전하는 옐로 골드 주얼리 컬렉션.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클리프 아펠 투 버티컬라이 이야기** 각각 옐로 사파이어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두 파스가 조화를 이루며, 실아 움직이는 나비의 움직임 표현했다. 3만2천원대. 문의 1668-1906 **다이아니 마르가리타 네크리스** 시트린 퀴츠를 중심으로 장식한 다이아몬드기아들은 꽃 모양을 이루는 옐로 골드 네크리스 5백19만원. 문의 02-3213-2141 **부세르 보렝 보렝 트루인 투에드 링** 3.477캐럿 시트린을 세팅한 벨 머리 모티프가 손가락을 농염하게 감싸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생크레는 골드 비즈 7점으로 벨 비늘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볼륨감을 강조했다. 6백만원대. 문의 02-3479-6028 포토그래퍼 **김사은** 에디터 **이유이**

# 맑고 빛나는

매끈한 피부 표현은 물론 스킨케어 효과까지 독특히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자비스 프라임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눈여겨볼 것. 네 가지 컬러 피그먼트와 마이크로 필을 함유한 수분 포몰라는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진기가 드러나는데, 섬세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녹아들 듯 알기 퍼 빌려 맑고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준다. 한련화 추출물과 수분을 머금은 하이브리드 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게 다독여준다. 30ml 7만1천원대. 문의 080-801-9500



# NEW ICON, F-HEEL

이탈리아 구두 명가 실바토레 페라기모가 새롭게 선보이는 아담작 F-Heel은 1947년 출시한 인비저블 샌들을 재해석해 완성한 제품이다. 독창적이고 구조적인 디자인의 힐을 매치한 물과 슬라백, 스트랩 샌들, 세 가지 스타일로 제안한다. 옐은 스킨 컬러에서 파스텔에 이르러 끼지 보지만 해도 볼이 가느다란 싱그러운 컬러 팔레트로 구성했다. 허시록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착용한 잔주 목걸이에서 영감을 얻어 흰색 잔주로 장식한 특별 에디션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 내 방에서 빠져드는 미술관 이야기



지구촌 전역에 드로운 코로나-19를 둘러싼 안개가 걷히고 진정한 봄날이 온다면 '할 일 목록에서 손꼽히는 순위는 아마도 여행일 것'이다.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아날 때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무대로 한 가상 미술관 투어를 해두거나 복습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다. 마침 지구촌 주요 미술관의 대표 컬렉션을 시공한 컬러도판과 함께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아인아트칼라링 김영애 대표가 집필하고 마르노에북스에서 펴낸 《나는 미술관에 간다》(476쪽, 장가 2만2천). 아트 투어 경험이 풍부한 저자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모마(MoMA), 미드리의 프라도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 10곳을 고르고 각각의 미술관마다 꼭 봐야 할 작품을 선정해 친근하고 대중적인 해설을 제공했다. 예컨대 우피치 미술관의 경우, 신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의 '메두사' 등에 대해 미술사적인 해석을 곁들여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집에서 방콕 하는 시간이 많다면 이책에 '영화 독서'를 붙여가서 결핍을 채워보면 어떨지.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사랑을 표현할 시간

다가를 발란타인데이뿐 아니라 소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로망틱 타임피스, 레인드 네이플 하트 9825는 네 가지 특색을 보유한 컬렉션이전 워치다. 타원형 다이얼 안에서 하트 형태의 마넨 핸드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분을 알려주고, 시간은 중앙에 위치한 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28마스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국내에는 소량 입고되었으며, 브레게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9-9559

# BEAUTY PERFECTOR

피부에까지 깊고도 집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시대. 뛰어난 효과와 활용도로 주목받는 홈 케어 뷰티 디바이스 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3세대 고주파 기술을 적용한 홈 케어 기기 스타트엑스. 얼굴과 목에 사용하면 피부 탄력 증진, 주름 개선,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만1천원대 **트리플라 from 네비프록시**. 문의 00798-44-341-351. 복합 LED 광원이 여러 각도의 피부층에 골고루 침투해 탄력과 톤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데마 LED 마스크 플러스 1백19만9천원 **엘지 프로그렘**. 문의 1544-7777. 부위별 5분 바이오펀리 고주파 에너지를 LED 레드 라이트, 프락셀 열 에너지로 집중 관리해 피부 탄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페이스 타이트 2.0 고주파 마사지기 55만원 **실론**. 문의 080-246-1234. 눈가 주름 케어에 최적화된 아이 리뉴라이저. 피부의 일부만 자극해, 해당 부위가 주변 피부 조직에 의해 자연 치유되도록 하는 프락셀날 레이저 기술 접목했다. 29만9천원 **트리아**. 문의 080-369-3300 포토그래퍼 **박지은** 에디터 **이혜미**



# PREMIUM DENTAL CARE

건강하고 아름다운 차이를 위한 코즈메틱 브랜드의 프리미엄 치약. (왼쪽부터) 싱그러운 시대를 담은 벨드 문토방 향이 기본 좋은 상쾌함을 주는 오이파 당테르. 천연 계면활성제라 불리는 저자극성 비오인 계면활성제를 함유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며 인체에 무해하다. 한국 엑스클루시브 제품. 75ml, 9만9천원 **볼리 1803**. 문의 1544-5114.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세정제 특유의 쓰릿함을 줄이고 이빨 고유의 풍미를 살린 투스페이스트. 부드러운 연마제인 탄산칼슘을 함유해 플라크와 음식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치아 손상을 최소화한다. 면세된 단독 판매. 60ml, 1만5천원 **이슬**. 문의 1800-1987. 고주파 에너지로 치아 표면의 각종 부착된 치사와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치은염 예방 및 미백 효과가 뛰어난 전통 칫솔 39만원 **실론**. 문의 080-246-1234 포토그래퍼 **박지은** 에디터 **이혜미**

# ANOTHER NAME

카멜리아는 사별 애증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과도 같은 상징적인 존재.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작고 사랑스러운 주얼리를 완성했다. 부릉 드 카멜리아 링과 네크리스 가격 미정 **사별 화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 혁신의 시간

1998년 처음 탄생한 이태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매김해온 불가리 알루미움 워치. 이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는 기존의 불가리 불가리 워치가 지닌 혁신성은 고스란히 간직한 동시에,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소재를 결합함으로써 상쾌, 세련, 트렌드를 뛰어넘는 시계로 사랑받아왔다. 심플하지만 특징적인 디테일이 시선을 끄는 불가리 알루미움 워치는 지름 40mm의 알루미움 & 티타늄 소재 케이스에 불가리 더블 로고를 음각한 블루 라버 베젤, 트리컬러 로고 장식을 갖춘 워 그레이 다이얼을 더했다. 47.4에 블루 라버 스트랩을 장착해 활동성을 높였고, 최대 100m까지 방수 가능하다. 3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 FUNKY TOWN

다가오는 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은 지금, 일렉트릭 맥킨의 신상품 슈즈로 S/S 시즌을 미리 맞이해볼 것. 허우스의 핑크 헤리티지를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핑크 펌프스는 앞코가 뾰족한 코트 슈즈 형태로, 강렬한 스타드 장식과 1950년대 감성의 시그니처 핀 힐을 더했다. 기본 펌프스는 데일리 또는 이브닝 스타일로 나눠 전개하며, 슬라백, 발레리나 슈즈 등도 함께 선보인다. 블랙·화이트·실버·핑크·레드 컬러에 이르러까지 컬러 팔레트와 소재 또한 다채로워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472





1 벨벳 재킷, 베스트, 포플린 핀턱 셔츠, 맨츠, 새틴 소재 보타이, 라넨 행커처프 모두 가격 미정 **할프 로렌 파플 라펠**, 2 크로코 가죽 소재 벨트 1백89만원 **폴름보 비아 델라 스파가**, 3 실크 소재 행커처프 21만원 **폴 포드**, 4 팔라움 슈퍼 H 브라운 실트 90만원대 **에르메스**, 5 재라눔과 샌들우드, 시어우드의 목조향 향이 관능적인 남성미 이미지를 연출하는 존 바버토스 XX 향수, 125ml, 122만 원 **존 바버토스**, 6 열대 과일과 시트러스, 작약, 라일락이 어우러진 풍부한 보드에 후추 향이 열개 깊이는 폴 페리뇽 빈티지 2010 30만원대 **폴 페리뇽**, 7 배너치 리드 일레 신드로 애플레이 옥스퍼드 슈즈 2백만원대 **벨루티**, 8 핑크 골드와 블루 엘 리케이터 스트랩의 조화가 돋보이는 모델, COSC에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칼리버 L888.4를 탑재했다. 레코드 컬렉션 38.50mm 워치 9백만원 **론진**, 9 도노그렘 패턴을 적용한 브리크케이스, 38x28cm, 83만5천원 **보스 맨**, 10 1.4K 골드 남과 프레스스 블랙 레진으로 완성한 에티지 이스트 메.아 인스틸 1백21만원 **몽블랑**, 11 비버에게 세이빙 브러시 39만원 **아쿠아 디 파르마**, 12 도마뱀가죽 카드 지갑 98만원 **브리오니**, 13 에.렘 트 라이언글 로조 장식을 더한 스틸링 실버 타이 클립 58만원 **프라다**.

할프 로렌 파플 라펠 02-3438-6235 폴름보 비아 델라 스파가 02-516-9517 폴 포드 02-6905-3534 에르메스 02-542-6622 존 바버토스 080-363-5454 폴 페리뇽 02-2188-5100 벨루티 02-547-1895 론진 02-3479-1940 보스 맨 02-515-4088 몽블랑 1670-4810 아쿠아 디 파르마 02-6905-3568 브리오니 02-516-9686 프라다 02-3218-5331

# for him Selection

여유로운 에티튜드와 자연스러운 품격을 담아낸, 예비 신랑을 위한 웨딩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UP TO -40°C FOR 49 DAYS

When Paul-Emile Victor was researching the ice-cold arctic region in 1936, his Longines chronometers continued to work accurately - helping him to calculate the longitude when he dared to cross the Greenland ice cap. "These watches made the difference between failure and success", Victor stated.

THE PIONEER SPIRIT LIVES ON.

**LONGINES**

5 LONGINES SPIRIT SI BALANCE-SPRING MAGNETIC RESISTANT 5-YEAR WARRANTY

론진 부티크  
RENEWAL OPENING 현대백화점 판교점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대전점 · AK플라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강남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 HDC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

www.longines.com/kr



1 풍성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벨 실크엣 오프숄더 드레스 1천만 원대 피터 팬그녀 by 아틀리에 쿠. 2 시그너처 CD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아세테이트 프레임 선글라스 60만 원대 다음. 3 스파이더 박스 클라치, 18X13cm, 3백66만 원 일렉시드 맥킨. 4 장미와 백합, 베틀베르와 마스크가 최상의 조합을 자랑하는 플로럴 프루티 향의 엘라치베단 로즈 향수. 100ml, 27만 원 펜할리곤. 5 풍성한 아틀리에 장식이 돋보이는 헤어 피스 1백50만 원 마우미우. 6 히트 모양 장식으로 사랑스러움을 배가한 크리стал 펄프스 1백77만 원 로저 비비에. 7 고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틴 펄프스 1백50만 원대 마블로 벨라네. 8 크로코 가죽 스트러처백, 29X21cm, 2천3백80만 원 콜롬보 비아 엘라 스파가. 9 다이얼로 드 까르띠에 뮤직 박스 3백60만 원대 까르띠에. 10 사랑스러운 코랄 컬러를 입은 레진 병글 가격 미정 사넬. 11 로즈 플레이팅 브로치 22인칭원 스와로브스키. 12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담긴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이 우아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레코드 컬렉션 26mm 워치 9백90만 원 론진. 13 클래식 6프론트 리브 쇼비트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골든듀.

아틀리에 쿠 02-517-3889 다음 02-3480-0104 일렉시드 맥킨 02-6905-3472 펜할리곤스 080-363-5454 마우미우 02-3218-533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마블로 벨라네 02-3443-2113 콜롬보 비아 엘라 스파가 02-516-9517 까르띠에 1566-7277 사넬 080-200-2700 스와로브스키 02-6402-1725 골든듀 1588-6576 론진 02-3479-1940

# for her Selection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취향을 지닌 예비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재탄생, 변신, 매혹의 상징인 벨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바이 퍼 컬렉션은 당당하고 강렬하며 현대적이다. 단독으로 또는 레이아웃에서 착용해도 존재감 있는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8천만 원대, 브라이덜링 3천만 원대, 벨의 특징을 정교하게 표현한 세르펜티 컬렉션 웨딩 밴드. 로즈 골드 링 1백만 원대,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3백만 원대. 모두 **벨가리**, 문의 02-2056-0170



일부셋 T의 수직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탄생시킨 티파니 T 컬렉션.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의 티파니 T 투 내로우 링 모두 가격 미정. 행운을 가져다주는 열쇠, 마네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등의 의미를 지닌 키 컬렉션 빅토리아 키 펜던트,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모두 **티파니**, 문의 02-6250-8620

# happy together

함께하면 감동 두 배. 선물로도 예뻐로도 좋은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네 입 클로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반클리프 아펠의 알함브라 주얼리 컬렉션은 그 자체로 행운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핑크 골드 체인에 그레이 마더오브펄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의 알함브라 모티브 20개를 엮은 반클리프 아펠의 네크리스 8천만 원, 매직 알함브라 이어링 2천만 원, 옐로 골드에 그레이 마더오브펄, 타이거 아이, 그리고 옉닉스를 세팅한 러키 애니멀즈 에리송 클립 파우나 8백만 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문의 1668-1906



히우스의 상징인 퀴팅 모티브를 주얼리에 새겨 넣어 젊고 발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코크 크러쉬 컬렉션. 화이트 골드 미니 사이즈 링,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31개의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모두 가격 미정 **사넬 화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에디터 장미윤



The Women Who Inspire Us\_13 윤석남

# 치열하고, 다정하고, 위대한 그녀들

‘윤석남’은 미술관 산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이다. 주요 국립 미술관의 소장 작가이고, 한국 여성주의(feminism) 미술의 대모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 다분히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하나. 정작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의 단초가 된 건 그런 무게감 있는 수식어가 아니라 어쩐지 따스하고 귀여운 매력에 푹 푹 빠지는 작품이었지만 말이다. 지난해 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던 <내 나니 여자라>라는 전시를 보다가 마주친 ‘우리는 모계 가족(2018)’이라는 설치 작품이었다. 굵게 주름 잡힌 청색 커튼을 배경으로 5명의 여성과 한 마리 강아지가 사이좋게 모여 있는데, 윤석남 작가 본인과 그녀의 어머니, 언니와 동생, 딸, 그리고 딸이 키우는 암컷 강아지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명을 접하고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2주쯤 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녀의 아틀리에를 찾아갔다.



약 3,300㎡(1천 평) 남짓한 대지에 시원스레 펼쳐진 2층짜리 건물. 소형 잠수함 정도는 너끈히 소장할 수 있을 듯한 규모다. 천 개 단위의 목조각 설치 작업을 한 공간에 늘어놓는 식으로 워낙 담대한 스케일로 작업하는 윤석남과 자못 어울리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빨간색 니트 상의에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채 마중 나온 그녀를 따라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기분 좋은 생동감이 뿜어져 나오는 현장의 모습이 사이에 들어온다. 드로잉과 채색을 하는 작업대, 나무를 다듬는 데 쓰는 듯 보이는 기계들, 한쪽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목조각상들... 작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사유와 몸부림을 품은 공간이어서일까. 아티스트의 작업실에서는 널브러진 도구나 작은 나무 조각 같은 사소한 것마저도 은근한 설렘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마침 서울 학교재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앞두고 있던 터라 미리 그녀의 ‘신작’을 살짝 구경하는 행운도 누렸다. 한지에 채색을 한 초상 시리즈인데, 벽에 기대어 있는 몇몇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다지 잘 알려진 인물들 같지는 않다. 그녀의 설명만큼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란다. 우리는 대개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지만 역사적 기록에는 2천 명가량의 이름이 존재한다고. 다만 얼굴이 없는 경우가 다수다.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건

처음인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1백 명 정도는 하고 싶어요. 얼굴 있는 사람은 다 하려고요.” 작업대 위에 펼쳐진 채색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초지를 올려놓고 먹으로 그대로 뜨고...”라면서 세세히 설명하는 그녀는 신이 나 보였다. 말끝에 툭을 높이면서 “너무 재미있어”라고 거의 울먹이는 수준으로 탄성을 내지르기도 한다. 마흔 살에 다소 늦깎이로 미술가 커리어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짐작대로 유쾌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녀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노라니 이렇게 재미난 일을, 그리고 잘하는 일을 놓았다면 정말이지 어쩔 뻔했나 싶다.

**‘자기만의 방을 꾸리다, ‘늦깎이’의 도전**  
실제로 그녀는 “미치도록 미술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열 살 무렵부터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 꿈을 줄곧 간직했지만 집안 형편상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윤석남의 부친은 한국 최초의 극영화를 촬영한 감독이자 문필가인 윤백남이다. “아버지가 책이 많았어요. (나도) 서재에서 살다시피 했지. 책들 덕분에 화가란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고 1 때 부친이 병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어머니가 홀로 육 남매를 어렵사리 키웠어야 했다. 그래서 둘째 딸인 그녀도 아간으로 들어간 대학마

이 이미지 역시 윤석남의 작품이다

저 그만두고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미술에 대한 열정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었다. “한국전력에 다녔는데, 거기에 도표를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도 화가였던 것 같은데, 도표 작업을 위해 회사에서 방을 줬어요. 나는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구경했죠. (웃음)” 결혼을 하고서는 시어머니를 모셨다. 1939년생으로 일제강점기의 끝자락, 한국전쟁, 분단 등 온갖 고통진 시기를 거치면서 살았던 테다. 결혼과 시집살이로 이어지면 대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접하는 ‘뻘한 신파처럼 스토리가 전개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남의 경우에는 좀 달랐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굴러가는 삶 속에서 그녀는 시인 박두진에게 서예를 배우고 화실에서 드로잉과 회화 레슨을 받는 등 자아 찾기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던 중 북촌 구옥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방 하나를 작업실로 쓰게 된다. 드디어 ‘자기만의 방’을 소유하면서 그녀는 그토록 갈망했던 미술에 뛰어들었다. 1979년의 일이다. 윤석남 작가의 그림책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 씨>(2016)를 보면 당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나온다. “스물일곱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마흔 들어 내 방을 갖게 되었어요. 경치 좋고 별 잘 뜨는 나의 이층방. 드러운 별 가운데 한참 있으니까 여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어요.”

**‘어머니를 되내고, ‘그녀들을 소환하고...’**  
변변한 정규 교육과정도 밟지 않은 주부 출신 미술인. 당연히 미술 생태계에서 환영할 만한 ‘스펙’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 작가들과 어울리면서 작업을 해나갔다. 그렇게 만난 13명의 여성 미술인이 돈을 모아 구만포 근처에 작업실도 함께 얻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문예진흥원 미술화관(현 이코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회화 작품을 선보였다(1982년). 주제는 ‘어머니, 그녀 자신의 어머니와 장사하는 여성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이 전시로 호평을 받으면서 <제1회 82인간11전(인간전)>에도 참가하



는 물꼬가 트였다. 이후 그룹전에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 뉴욕에서 체류하면서 해외 동향을 몸소 익히기도 하는 등 부지런히 달리던 그녀는 1985년 한국 여성주의 미술사에서 의미 있는 자취로 여겨지는 ‘시월모임’을 결성한다. ‘구만포 모임’에서 만난 ‘결혼한 또래 작가’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친분을 다져온 김인숙, 김진숙, 윤석남 등 3인방이 뭉친 것. 러시아의 10월 혁명에서 따온 ‘시월모임’ 멤버는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 전시를 가졌는데, 첫 전시는 ‘주부 화가’ 정도로 불리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인(부)에서 하나로)라는 두 번째 그룹전은 여성주의 미술의 출현을 예고한 최초의 전시로 언론과 문화 예술계, 그리고 여성운동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윤석남의 출품작은 생계와 가사를 위한 노동과 양육 등으로 고달픈 어머니의 희생을 그린 ‘손이 열아라도’(1986). ‘어머니’라는 주제는 그 후로도 10년에 걸쳐 윤석남의 작품 세계를 지배했다. 1993년 금호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는데, 전시 제목이 <어머니의 눈>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그녀는 버려진 목재를 조립해 여성의 신체를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브롱스 미술관의 남미 작가전을 보고 귀국한 뒤 강릉에 있는 허나실현 생가를 방문했는데, 당시에 주위 온 감나무 가지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나무 작업을 탄생시킨 것이다. 시작은 개인적





1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작업 중인 윤석남 작가.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서울 소격동에 위치한 학교재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 준비에 한창인 모습. 이번 개인전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 역사를 뒤늦게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에는 강주홍, 박지혜, 동홍신, 정경화 등 역사 속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 연작과 대형 설치 작업을 함께 선보인다. 2 2018년 학교재 개인전 <윤석남에서 작가 활동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 주제를 내세우고 동양화 기법의 자화상을 선보였다. 자화상(2018), 한지 위에 분채, 137X93cm. 3 자화상(2017), 한지 위에 분채, 75X47cm. 4 박지혜 초상(2020), 한지 위에 분채, 210X94cm. 5 동홍신 초상(2020), 한지 위에 분채, 210X94cm. 6 주로 설치 위주의 작품을 내놓았던 윤석남은 2018년 전부터 자화상과 친구들의 초상, 역사 속 인물들의 초상 등을 동양화 기법의 채색화로 선보이고 있다. 7 역사에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 시라노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 6, 7 Photo by 김동오



인 서사였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내로 점철된, 하지만 치열하게 살면서도 당당함을 추구했던 한국 여성의 삶을 투영하고 있기에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대안적 여성주의 문화 운동을 꾀했던 단체 '또 하나의 문화'와의 교류를 비롯해 페미니스트 잡지 <이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작품에는 역사 속 인물들도 반영하면서 여성들의 연대를 확장하는 데도 앞장섰다.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자체도 생소했던 시기에 그저 자신을 쏟아내기 위해 미술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성주의 미술가'라는, 자칫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표현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나 예겐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페미니즘을 불러온 것 같다.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시인 김혜순과 나는 대답에서 그녀가 직접 한 말이다. 결국 거창한 논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주체가 되기 위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외침이 아니겠는가.

**'나를 끄집어내다, 자화상으로 문을 연 채색화'** 여성주의라는 수식어가 상업적 논리가 지배하는 갤러리 시장에서는 제약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윤석남은 어느덧 브랜드가 되고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 9백99개의 목각 여인상 작업(999-빛의 파종)으로 여성 미술가 최초로 이중섭미술상을 거머쥐고(1996년) 베니스 비엔날레 등 해외 유력 행사에 초청받았으며 영국 테이트 컬렉션의 소장 작가(금지구역 I)가 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누군가



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그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말할 게 없었던 거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당한 우리 엄마 얘기로 시작한 거예요." 1990년대부터 조각이나 설치로 자화상을 담아내기도 하고 동시대 여성의 불안과 자괴감을 담은 작품(핑크룸' 등)도 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봉인을 제대로 풀기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2018년 학교재에서 연 개인전 <윤석남>이 바로 그 봉인 해제의 무대였다. 그녀는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 두서 초상을 보고 매료된 기억을 살려 채색화를 배웠고, 동양화 기법으로 채색한 다수의 자화상을 학교재 개인전에서 선보였다. 자신의 얘기를 처음으로 전면에 끄집어냈다는 그녀는 이후 자신은 물론 소중한 벗, 그리고 이번에는 독립운동가의 초상까지 '초상 시리즈'에 몰두하고 있다. "초상을 공부하다 보니 조선시대에는 여성 초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벼슬을 한 남자들만 있고, 은근히 화가나고, 뭐가 이렇게 우렁우렁 올라오더라고요." 이달 중순 학교재 개인전(2월 17일~3월 28일)에서 선보일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의 경우에도 그녀는 할 말이 많다. 한 고위 관리가 동향 출신인 유관순을 알리는 데 맹렬히 나서서 바람에 다른 존재들은 묻혔는데, 실제로는 남쪽에 유관순이면 북쪽에 동풍신이라는 기록도 있고, 대다수가 모르는 진실이 버젓이 있다는 것. 전시 제목은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 역사를 뒤늦게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 김이경 소설가가 동명의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윤석남의 '허스토리(herstory)'는 앞으로도 주목 받을 것 같다. 글 고소연



(위부터) 실버 텍스타일 주얼 버클 펄프스 1백 50만원대 **마늘로 블라네**, 알티칼라 글라티 미니 백 75만원 **지미 수**, 크리스탈을 파베 시팅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컷 브라이덜릿 1609만원 **스외로브스키**, 자몽과 생강의 씩씩하면서도 산뜻한 향이 조화를 이루는 남성 향수 100ml, 38만원 **루이 비통**, 미니립한 실버 & 골드 컬러 컷스 링크 35만9천원 **에스.티. 듀폰 파리**, 드림 향타의 화이트 크리스탈을 센터피스로 세팅한 링가드 링과 세트로 판매 1609만원 **스외로브스키**, 리안스톤 체인 모타브 장식의 그레이 벨벳 모자신 1백34만원 **주세페 자노티**.

(위부터) 혼스킷 장식의 블랙 GG 벨벳 소재 코피 1백90만원 **구찌**, 모노그램 프론트 보타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입체적으로 구현한 고무의 엠블럼 대립 컷스 링크 65만원 **몽블랑**, 아이코닉한 보틀에 상숙한 플로럴 부케를 담은 N5 오 드 파르페 100ml, 21만9천원 **샤넬**, 블랙 안락가죽과 골드 프레임이 아우라진 고급스러운 무드의 제우스 프라임 미니 클라지 가격 미정 **몰랑보**, 비아 델라 스파가, 다일리아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2백93만원, 다일리아 화이트 골드 링 5백90만원 모두 **골든듀**, 투명한 PVC와 화이트 페이퍼트 레더가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디자인의 펄프스 97만원 **자노티 로시**.

# perfect pair

남다른 취향을 반영한 웨딩 스타일을 완성하도록 도와줄 감각적인 웨딩 슈즈 & 액세서리 스타일링 제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견고한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베레아 레디 옥스퍼드 슈즈 3백65만원 **벨루티**, 로고를 새겨 넣은 알렉스 컷스 링크 36만원 **에스.티. 듀폰 파리**, 골드 메탈과 크리스탈로 구현한 더블 C 로고가 아름다운 핑크색 벨벳, 화이트 엠 스킨 플럼 체인 동전 지갑,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타브를 따라 화이트 글라스 필을 시팅한 브로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흑연에 자태를(JADIOR) 리본 대립감을 더한 슬림백 펄프스 가격 미정 **디올**, 은은한 빛을 머금은 이브야진주 네크리스 가격 미정 **골든듀**.



(위부터) 플라워 모티브의 화려한 주얼 버클 장식을 더한 미러 레더 펄프스 2백67만원 **로저 비비에**, 리온드, 드림, 오벌, 스커머, 트릴리움 등 다채로운 컷의 크리스탈을 사용한 올 어라운드 네크리스 39만9천원 **스외로브스키**, 에-켈 트리아렐로 로고가 돋보이는 스티플 실버 타이 클립 58만원 **프라다**, 올 블랙 컬러의 에뉴얼 캘린더 워치 2백73만원 **루빈**, 향신료, 가죽, 꽃 향이 조화롭게 아우라진 우디 디오마티 계열의 엔드미온 공상트레오 드 파퓸 100ml, 27만원 **팬탈리온스**, 활짝 피어난 국화피의 달리아 꽃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세팅 화이트 골드 이아워 2백93만원 **골든듀**, 블랙 실트 카뷰 모타이 260원, 날렵한 실루엣의 블랙 레스업 옥스퍼드 슈즈 1백만원대 모두 **프라다**, 에디터 **이혜미**

- 골든듀 1588-6576
- 구찌 02-3452-1921
- 디올 02-3480-0104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루빈 02-310-1597
- 루이 비통 02-3432-1854
- 마늘로 블라네 02-3443-2113
- 몽블랑 1670-4810
- 벨루티 02-547-1895
- 샤넬 080-200-2700, chanel.com
- 스외로브스키 02-6402-1725
- 에스.티. 듀폰 파리 02-2106-3596
-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 지미 수 02-3438-6107
- 시간비트 로시 02-6905-3690
- 몰랑보 비아 델라 스파가 02-2230-1225
- 팬탈리온스 080-363-5454
- 프라다 02-3218-5331

# Behind the icon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열정 가득한 여인의 삶을 향으로 표현했다.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은 이 향을 통해 우리는 마드모아젤 샤넬을 기억한다.



가브리엘 샤넬은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수없이 오간 수녀원 복도 모자이크 타일과 외로운 기도실의 상들리에,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을 걸어낸 검소한 블랙 & 화이트 수녀복을 마음에 담았다. 직접도록 길었던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 성공에 대한 굳건한 의지, 어떤 역경에도 굽히지 않는 용기, 그리고 뛰어난 예술적 감각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을 것이다. 유명한 가브리엘 샤넬의 파도 같은 인생 이야기는 총 3막으로 나눌 수 있다. 1막은 고아원을 나와 역경을 이겨내고 파리 광부(Cambon)가 21번지에 첫 모자 상점을 연 시점까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리 상점의 문을 닫은 후 1913년 휴양 도시 도빌(Deauville)에 상점을 열고 의상을 선보였고, 1918년 다시 파리 광부가 31번지에 안착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또 한번 상점 문을 닫을 때까지 2막이다. 그리고 1959년 75세의 나이로 패션계에 컴백해 세상을 놀라게 한 이후가 마지막 3막이다. N5는 샤넬의 인생 2막에 태어난 향수다. 자유로운 20세기 여성의 모습을 대변하는 스타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 친구와 연인을 얻던 그때 그녀는 안주하지 않고

당시 향수업계의 질서를 뒤흔든 향수를 출시했다.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향을 담은 담백하고 솔직한 디자인의 보틀이 특징인 샤넬의 첫 번째 향수 N5에는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먼저 향수업계에 굴복한 기록을 남길 만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이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는 것, 당시 유행하던 과장된 서정성과는 반대로 단순한 숫자를 이름으로 선택한 것, 한 가지 꽃향기를 담은 향수가 유행하던 시절에 잘 배합한 인공향을 출시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게다가 샤넬은 그 어떤 것과 유사하지 않은 향을 만들기 위해 그라스 로즈 센테릴리아(Grasse Rosa Centifolia) 지역의 독특한 메이 로즈와 에스테렐(Esterel) 언덕의 재스민을 비롯해 인도양에서 오유월 따뜻한 아침에만 수확하는 일랑일랑 등을 사용했다. 제작 공정도 엄격한데, 파리에서 멀리 않은 곳에 자체 생산지를 소유해 암호화된 지시 사항을 기술자들에게 전달하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드뤼사주(Baudruçhage) 분할법으로 미개를 닫고 라벨을 붙여 마무리한다. 이 분할법은 오직 N5 향수에만 사용하는 기법으로

향수액을 최상의 품질로 보존하기 위해 병 입구에 얇은 막을 대고 검은 면사 두 줄로 묶은 다음, 밀랍 스탬프로 샤넬의 로고를 찍어 향기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비밀은 바로 고객들에게 이 유일무이한 N5의 향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는 이미지가 극도로 뛰어나다는 점. 1930년대에는 마드모아젤 샤넬 스스로가 홍보대사가 되어 헬무트 뉴튼이나 어빙 펜 같은 당대 최고의 포토그래퍼와 작업했다. 그 후에는 캔디스 버겐, 수지 파커, 로렌 허튼, 카트린 드브리 등 동시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하며 많은 이들을 꿈의 세계로 초대하고 상상력을 자극했다. 게다가 1960년대에는 최초로 대본이 있는, 영화 수준의 광고를 만들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1년, 탄생 1백 주년을 맞은 샤넬 N5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며 마리옹 꼬피야르의 손을 잡았다. 강인하고 매혹적인 그녀는 연인과 에너지 넘치는 춤을 추며 샤넬의 1세기 역사에 경의를 표현하는 동시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마치 꿈을 꾸듯 달 위에서 춤을 추 후 파리의 다리에서 만난 연인.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여성의 면모를 담아낸 향수.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 샤넬의 두 핵심 인물, 향수와 뷰티 사업부의 회장 앤 커비(Anne Kirby, 이하 AK)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리소스 책임자 토마 뒤 프레 드 생 모르(Thomas du Pré de Saint Maur, 이하 TPMS)를 만났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파리와 서울에서 줌(Zoom)으로.

Q 이 작은 향수를 1백 년이나 선보여온 것이 무엇보다 존경스럽고, 축하합니다. 취향이 다양한 전 세계 여성들에게 1세기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AK 우선 이런 찬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넬 N5는 뛰어난 향수인 동시에 멋진 스토리를 지니고 있지요. 19세기 고아로 태어나 20세기 전설이 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의 분신이기도 하구요. 한 여인의 인생 여정과 샤넬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여정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TPMS 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N5의 스토리는 전설적이고 인간적이며 매우 현실적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의 삶은 모든 여성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니까요. N5는 한 고아가 자수성가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것처럼,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대나 유행을 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sponsored by CHANEL. 문의(060-332-2700www.chanel.com)

Q 샤넬 N5는 향도 향이 아닌, 보틀 디자인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가 큼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담긴 가치를 향에 누리기 위해 N5를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나 조 폰티(Gio Ponti),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의 의자를 구입하는 것처럼요. TPMS 좋은 포인트입니다. 먼저 N5를 구성하는 향과 이름, 보틀 등 모든 요소에는 여성들이 향수를 경험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상적이기도 한데, 이러한 추상적인 부분 때문에 향수를 사용할 때 더 감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N5는 사실 당대의 장식적인 보틀 스타일을 거부하면서 가브리엘 샤넬의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의미를 내포할 필요 없이 온전히 향수 보틀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무엇보다 기능적이고, 걸레가 없으며, 유행을 반영하지 않은 간결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이고 타임리스하면서도 고전적인 평을 받죠. 잘제된 보틀 디자인은 미니멀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과감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샤넬의 혁신적인 요소이자 브랜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K 샤넬의 코드가 미학과 만나 샤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준 것이라 할 수 있죠. TPMS N5는 샤넬이 개발한 최초의 뷰티 제품이기 때문에 이후 샤넬 브랜드의 시각적이고 철학적인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사용, 구성주의적인 기능성, 엄격히 배제한 불필요한 디자인 등 어떻게 보면 루주 일류르(샤넬의 대표적인 립스틱 라인)도 N5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N5의 정신을 샤넬 전 제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Q 천연 원료와 (최초의) 합성물의 조화, 유일무이한 향이 지니고 있지 않다고만 이 공감할 수 있는 향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N5는 매우 모던하고 과감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MZ 세대의 커뮤네이션에서 이런 면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TPMS 도전이기는 하지만 MZ 세대와는 소통 플랫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교라고도 생각합니다. 부티크 안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방법으로 N5를 소개하고, 향수가 탄생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샤넬만의 사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N5의 상상력, 상징성은 물론 소중한 자신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향수의 기능을 넘어 N5를 사용하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이 향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동시대 언어로 전달해야겠죠. 정말 탁월한 향수 그 역사와 전통을 통해 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향수입니다. 이런 면을 갖추어야 평범한 제품에서 진정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AK 또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여성의 성취와 운명을 담은 스토리는 보편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 모든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시대마다 차이가 있고 밀레니얼 세대는 1960년



대나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와는 다르지만, 자아 성취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열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고 아름답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타임리스한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향기를 글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를 상상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코로나19)엔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샤넬 N5는 우리를 어디쯤 있게 만들어주는 향일까요? 장소를 설명하는 것도 글로 설명하는 것이지 만요. (웃음) AK N5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많이 다닌 향수입니다. 이는 각 시대와의 만남을 상징하죠. TPMS 맞아요. 향기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메이 로즈와 재스민, 알데히드 화합물을 더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라고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쉽죠. (웃음) 감성적으로 설명하자면 저는 N5가 잘제되어 있으면서 빛나는 향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샤넬의 여성스러움과 자유로움, 호트라짐이 없는 강한 에너지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죠. 장소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딱 한 장소와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만, 파리일 것 같아요. 프랑스 역사를 보면 파리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파리는 창의력을 지향하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빛났죠. 샤넬 N5는 프랑스의 정신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향수예요. 프랑스 문화는 항상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와의 연결 고리를 찾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파리를 선택했었습니다.

Q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샤넬 N5의 광고는 나를 키드먼이 등장한 2004년 광고일 것 같아요. (물론 루즈)의 비즈 루어만 감독과 함께 한 이 영상은 대중에게 확실하게 샤넬 N5의 이미지를 새겨넣었죠. 마리옹 꼬피야르와 함께한 이번 영상도 그런데, 사랑, 춤, 연인 등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향기를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TPMS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아이디어와 주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성취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생각이죠. 미래를 보여주면서 자아 성취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예요. 여인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룰 때인 생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연인과 상관없이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말쑥한 신이던 광고 영상은 2020년 크리스마스에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2020년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반기운 사람들과 재회하고, 낭만적인 연말 분위기를 담고자 했어요. 춤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이유는 샤넬 브랜드에 제일 의미 있는 예술 분야가 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브리엘 샤넬도 안무가들과 협업을 많이 했고, 옷을 통해 여성들의 몸을 자유롭게 해주었죠. 이런 자유를 춤으로 해석해서 보여주었고 싶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춤은 우리 인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주는 춤인데 장차이지 않아요. 역동적이고, 수선스럽고 코믹한 순간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해요. 결코 간단하거나 평온하지 않은 삶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자아 성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담고 싶었습니다. 또 사랑은 N5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 또한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한 여인이 개발한 향수, 여성을 그대로 담은 향수, 이런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Q 오랜 유산은 가치가 있지만 지루할 수도 있지요. 그런 면에서 N5는 1백 세 된 할머니 느낌이 아니고, 매우 모던하고 젊은 느낌이에요. AK 이런 상황에서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물려받은 유산을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본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이 구시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산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 동시대와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N5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크리에이션 과정, 자유로운 창의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이지요. 이 세상에는 정해진 규율이 있고, 모두 영연한다고 생각하는 시장의 원칙이 있음에도, 크리에이티브는 이런 것을 정답히 무시합니다. 그것이 샤넬의 출발점이지 에너지의 원천이지요. 후각적으로 최고의 향수인 N5를 보존



하고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샤넬 내부에서 N5는 우리가 직면하는 방식의 기준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향수의 높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죠. N5와 샤넬 팀의 이러한 끊임없는 교류가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Q MZ 세대의 특징은 브랜드 이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나치 향수가 성장하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구요. 이 다음 세대는 또 어떤 특징을 보여줄지 예상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N5는 어떤 도전과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AK 젊은 세대가 브랜드 이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건데는, 브랜드에 기대하는 것이 조금 달라져,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소비자는 향수 기 존 시장의 흐름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접점을 찾고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5의 후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고차원 고유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나아가 어릴수록 자아 성취와 자수성가는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팀은 젊은 세대가 샤넬의 마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 혹은 자신만의 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N5를 사랑하고 N5의 스토리에 공감하면서 경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21세기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샤넬 N5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TPMS 혁명적이에요. AK 딱 한 단어요? 열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네요.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열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감이지요. 내 운명에 대한 확신과 함께요. 에피타 정미원

1 무엇을 입고 자느냐는 질문은 N5 및 발발이던 총본이라는 유명한 대담을 남긴 베르너 멘로. Photo by Bob Beeman 2 N5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 모델이 된 마리옹 꼬피야르. Photo by Steven Meisel 3 1937년 "아름다움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가브리엘 샤넬. Photo by François Kollar 4 샤넬 뷰티의 아이콘, N5 향수. 5 N5를 표현한 1921년 삽화.



# marvelous moment

진귀한 성분과 최첨단 과학이 만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선사한다.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절정의 순간을 표현하는 꽃처럼, 에너지로 꽉 채운 광채와 탄력 있는 피부로 최고의 시간을 되찾게 해줄 럭셔리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샤넬 수블리미지 레센스 휘미에르**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고두리에서 추출한 워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인티비스 추출물은 착색으로 인한 칙칙한 피부 톤을 균일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풍부한 수분감을 지닌 글리세린과 영양을 공급하는 사이타이드 풍부하게 함유해 크림을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40ml 62만5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캘망 오가드 임페리얼 레디언스 세럼** 캘망 연구소가 나이나 환경, 라이프스타일 등 피부 톤 노화와 빈점, 그리고 피부 결장의 내·외부적 주원인을 연구해 출시한 제품이다. 주름 개선 기능이 있으며 혁신적인 브라이팅팅 듀얼 테크놀로지로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도와준다. 매일 아침과 저녁, 크림 사용 전에 손끝으로 얼굴 바깥쪽을 향해 펴 발라 준다. 30ml 70만8천원. 문의 080-343-9500

**데코르테 리프트 디멘션 인헨스드 리주베네이션 크림** 유효 성분을 함유한 것은 물론, 그것을 피부 속까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추었다. 탄탄한 피부로 가꾸주는 콜라겐 트립티펩이드와 건강한 톤으로 되돌려주는 사클 드 밀 로즈 추출물, 그리고 썬베넷 열매와 인삼 추출물까지 더해졌다. 피부 인젝터부터 백크게 리프팅되는 느낌을 주어 어느 각도에 서든 얼굴선이 입체적이고 매끈해 보인다. 50g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리프레이 플라워링 레어 오드 레주베네이션 크림** 플라워링 열티펩티드와 독자적인 셀룰라 글콜레스가 피부 보건의 건강한 메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피뭉겔 성분, 보습과 광채 향상, 피부 탄력 개선에 직접 영향을 주어 컨디션 개선과 시간이 멈춘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컬렉션의 아이 얼릭시아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0ml 가격 미정. 문의 02-511-6626

**시슬리 휘트 블랑 르 수앵** 순바탕과 발바탕의 색이 더 밝다는 자연적 메카니즘에서 시작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제품. 인티 다크 스팟,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및 최후의 어벤 프루텍션(SPF 50+ PA+++), 세 가지 통합 기능을 갖추었다. 매일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좋다. 40ml 36만원. 문의 080-549-0216

**링콤 압슬뤼 바이 엠** 오일과 에센스를 두 층으로 농축한 오바-10트 리퍼어링 앵콜. 나노 캡슐화한 세 가지 세라미이드 복합체와 링콤 장미에서 추출한 특별 활성 인자 성분, 그리고 고농축 오일 덕분에 깊은 보습과 영양 제공에 효과적이다. 오일과 에센스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진 후, 손에 3~4방울 떨어뜨려 체온으로 녹이고 마사지하듯 비르면 짧은 시간에 피부 장벽과 탄력을 강화하고 광채를 더해주며 주름을 개선한다. 12ml 20만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장리윤**



# sensual touch

겨울 끝자락에서 느끼는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빅터앤볼로 프라워 밤 EDP**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 로즈와 재스민 삼박, 프리지아로 이루어진 플로럴 향에 중실하면서 베르가모트와 파출리, 머스크를 더한 매력적인 향기가 후각을 자극한다. 화려하고 호화로운 무기를 의미하는 다이아몬드 수류탄을 콘셉트로 디자인한 보틀에서는 로맨틱하면서도 강렬한 애기가 느껴진다. 50ml 13만5천원. 문의 080-363-5454 **톰 포드 비터 피치 오드 파퓸** 동계진 복숭아 과육 시트로 농밀하게 녹여내리는 과즙처럼 도발적인 달콤함을 향으로 표현했다. 붉은 복숭아 페슈 드 비뉴와 블러드 오렌지 오일이 현대 아우라진 달콤한 과일 향을 시작으로 코냑 오일, 샌들우드 앵술루트, 바닐라와 톱카 빈의 목직한 향이 대조를 이루며 은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50ml 41만8천원. 문의 02-6971-3211 **자미 추 아이 원 후 EDP** 민트 그린 주스의 시트러스 향에 피치가 아우라진 프루티 향을 시작으로 레드 스파이더 말라와 재스민 삼박이 아우라진 플로럴 노트가 바닐라와 벤조인오이 아우라진 베이스 노트와 만나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40ml 7만5천원. 문의 080-800-8809 **엑스 헬로 러스트 인 파피리아스** 이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프랑스 리비에라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화이트 피오너를 중심으로 핑크 페퍼와 화이트 시더우드, 앵버가 차례대로 이어지며 진함은 깊어지고 우아하다. 50ml 28만원. 문의 02-6905-3353 **샤넬 뷰티 가브리엘 샤펬 에센스** 그라스 투베르즈, 재스민, 일몰일랑, 오렌지 플라시미 아우라진 센수얼한 꽃향기가 상큼한 시트러스와 레드베리와 만나 매력적인 조합을 이룬다. 이어지는 샌들우드와 바닐라 화이트 모스크는 관능적이고 풍성한 향을 선사한다. 100ml 23만9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플로에 로즈 탠저린 오드 후 앵버** 광로에 특유의 신선하고 깨끗한 장미 향이 탠저린과 블랙 카랜트와 만나 한층 더 생기 넘치며, 사더와 앵버로 깊고 깨끗하게 마무리된다. 50ml 11만 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이유미**



트위드 잔타지 롱과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사슴**, 화이트 실크  
 베일 가격 미정 **이경순웨딩드레스**,  
 페어·마크스·리온드 브릴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빅토리아  
 마스크 클러스터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타파니**.



Ever thine,  
 Ever mine,  
 Ever ours

작아서 더욱 특별한 우리만의 시간.  
 프라이빗 스몰 웨딩을 위한 로맨틱 드레스 룩.  
 photographed by kim sin ae

세종시 불라베 샵(인성동 222번지)



1개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와 7백45개의 리온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풀림 드 펑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부세론**.



38개의 이코아 진주, 1백67개의 브릴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기품 넘치는 디자인의 조세핀 아그레드 인페리얼 다이렘 가격 미정 **쇼세**.



(위부터) 타일모스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컨스텔레이션 웨딩 밴드. 남성을 위한 심플한 디자인의 컨스텔레이션 옐로 골드 링 1백75만원, 여성을 위한 다이아몬드 세팅 컨스텔레이션 옐로 골드 링 3백70만원 모두 오메가, 두께 4mm의 플라티넘 보디에 'Van Cleef & Arpels' 문구를 인그레이빙하고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우쥬르 시그니처 에프알 웨딩 밴드, 두께 3mm의 우쥬르 시그니처 에프알 웨딩 밴드 모두 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인 비제루원 컬렉션의 웨딩 밴드. 모던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비제루원 링 1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한 화이트 골드 비제루원 링 가격 미정 모두 불가리.

과감한 플러징 네크라인이 돋보이는 핏 드레스 3백8만원 파비어나필라피, 32개의 스퀘어 다이아몬드, 2백74개의 브라운 다이아몬드, 18개의 비게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풀프 핑크 골드 아이링 8천만원대 부세론, 인손 검지에 착용한 로즈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세미 파베 세팅 슬림 링 3백만원대, 약자에 착용한 로즈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풀 파베 세팅 링 8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위부터) 다이얼 중앙을 가로지르는 물결 모양의 다이아몬드 세팅을 중심으로 한 유니크한 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블랑팡 우먼 뉴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트 워치 5천1백만원대 **블랑팡**.  
 베젤 일부를 제외한 케이스를 다이아몬드로 올 파베 세팅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빛이 일품인 포제션 워치, 30주년 기념 1백30개 한정으로 선보인다. 가격 미정 **피아제**.

(왼쪽부터) 케이스 지름 41.5mm, 화이트 다이얼 위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와 투르비옹이 대칭을 이루는 마스터 옴트라 싼 투르비옹 문 워치 가격 미정 **에거 르클레르**. 콤팩한 로마숫자 인덱스와 크로노그래프 창을 갖춘 클래식한 다이얼의 스타 레가시 크로노그래프 데이 & 데이트 워치 6백15만원 **몽블랑**. 8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칼라버 59210으로 구동하는 포르토파노 핸드 와인드 8 데이즈 워치. 레드 골드 케이스와 다크 브라운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어우러진 말쑥한 외관이 돋보인다. 2천3백40만원 **IWC**.



케이프 디어웨이 로맨틱한 주얼 장식 드레스 가격 미정 **재-퍼펙트 by 소슈 브라이덜**, 고전미를 강조한 화이트 골드 소재 브레스크 다이아몬드 이어링 1천2백9만원, 이어링과 페어링 착용하면 더욱 돋보이는 섹시한 디자인의 브레스크 화이트 골드 링 1천2백9만원 모두 **다이아니**.



(위부터)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입체적인 디자인의 마누 안게이지먼트 링 7백64만원 **다이아니**,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와 밴드를 따라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는 티파니 에메랄드 컷 솔리스트 안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티파니**, 플래티넘 보디 중앙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몬트로 다모레 안게이지먼트 링 4천1백만원대 **블가리**, 클래식한 디자인의 플래티넘 보디 위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광채를 더한 피아체레 솔리테어 파베 링 9백만원대 **타사키**, 2캐럿에 달하는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빛으로 영원한 삶의 약속을 상징하는 까르피에 데스타네 솔리테어 링 1억원대 **까르피에**.



와이드 파고다 슬리브가 인상적인 화이트 더블 버튼 코트 5백만원대 **팬디**, 화이트 브라이덜 베일 34만원 **폴 포드**, 왼손 중지에 착용한 구 데콜라드 카르띠에 화이트 골드 링은 나선형 디자인의 볼륨감 넘치는 보드에 총 1.0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5개를 세팅했다. 2천5백만원대,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칼링트리 드 카르띠에 화이트 골드 링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페 세팅하고 블랙 라커로 장식했다. 7천5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러플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사랑스러운 무드의 레이스 코셋트 드레스 7백만원 **이경순웨딩드레스**.

모델 폴리  
헤어 신유진  
메이크업 유혜수  
어사스튜디오 정은우  
에디터 **이혜미, 이주이**

- IWC 02-3440-5876
- 몽블랑 1670-4810
- 블랑팡 02-6905-3367
- 샤넬 080-200-2700, chanel.com
- 이경순웨딩드레스 02-540-5551
- 예거 로플트르 02-6905-3998
- 제니백담 by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 파비어나 필라미 02-6905-3626
- 피아제 02-3479-1802
- 팬디 02-514-0652
- 폴 포드 02-6905-3640
- 타파니 02-6250-8620
- 부세론 02-6905-3322
- 소세 02-3479-1597
- 블가리 02-2056-0170~2
- 카르띠에 1566-7277
- 다미아니 02-3213-2141
- 타사지 02-3461-5558
- 오메가 02-3467-8632
-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 eternal time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연인을 위한  
IWC 샤프하우젠의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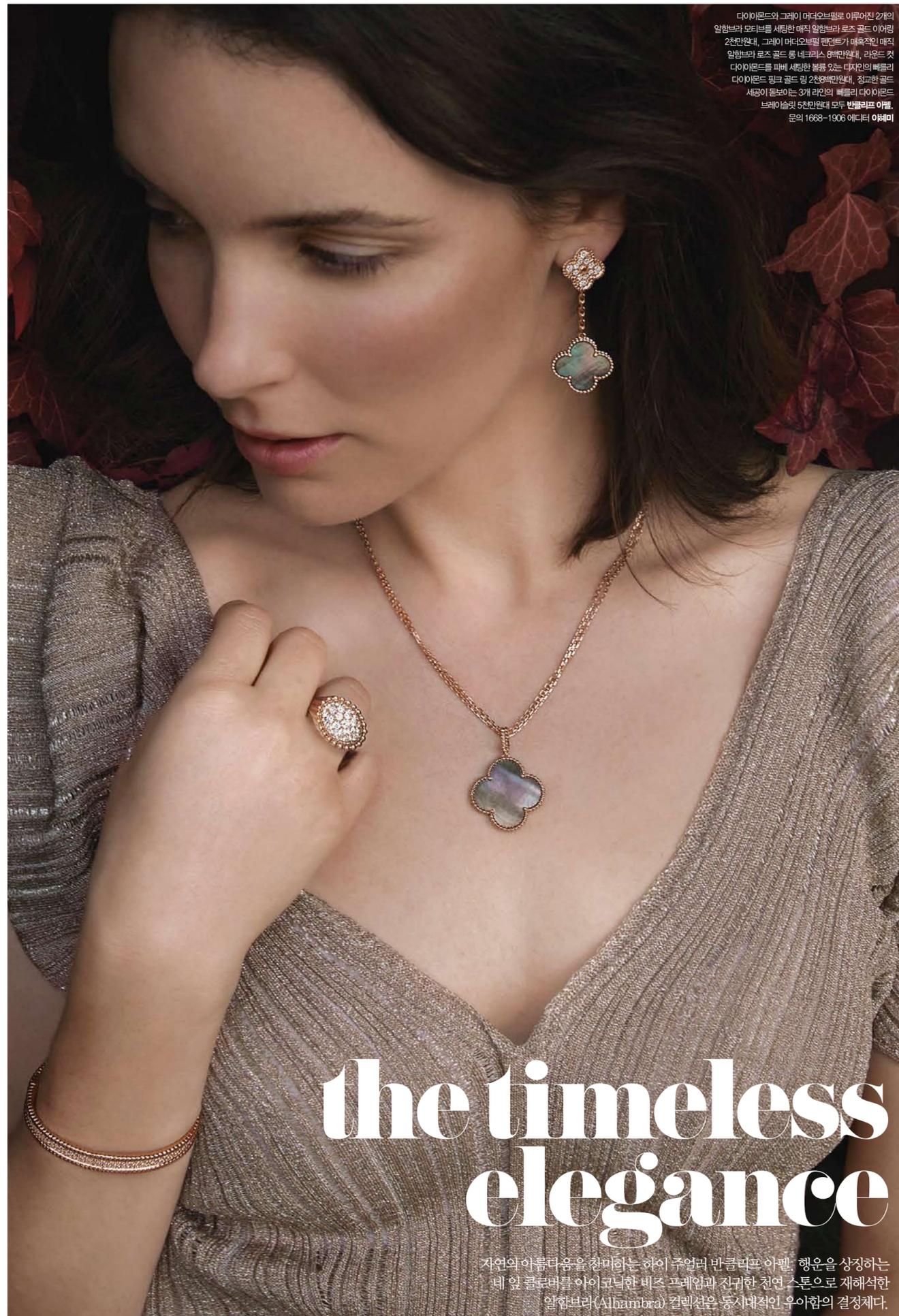
워치메이킹에 관한 최고의 기술력, 특유의 절제된 디자인,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IWC 샤프하우젠. 1백5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최상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 몰두해온 이들의 타임피스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고 있다. 영원함을 약속하는 사랑의 징표로 완벽한 선택이 될 IWC 샤프하우젠의 다채로운 워치 컬렉션. 그중 브랜드의 대표적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인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는 2499년까지 시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저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페어 워치로 제안하는 여성을 위한 포르투피노 오토매틱 34는 이탈리아의 여유로운 휴양 도시 포르투피노의 바다를 담은 듯 반짝이는 다이얼이 아름다운 모델. 연인과 함께할 소중한 매일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할 것 같은 환율한 기분을 선사한다.  
문의 02-3440-5876

실제 달의 주기와 오차가 5백77.5년 동안 단 하루에 지나지 않을 만큼 고도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팔면 와인딩으로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52610 칼라바로 구동한다. 실버도금 다이얼 위 날짜·요일·월 디스플레이와 네 지리 연도 표시 창,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지름 44.2mm의 레드 골드 케이스 전반에 이차형 사파이어 글라스를 장착했다. 산토나사의 고급스러운 다크 브라운 옐라게터 레더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4천7백70만원. 1984년, 자중해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표방하며 탄생한 포르투피노 컬렉션. 그중 케이스 지름을 34mm로 축소된 포르투피노 오토매틱 34 워치는 여성의 손목에도 알맞은 크기로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한다. 레드 골드 케이스와 살버 다이얼, 그리고 아가씨에 세팅한 1백4개의 다이아몬드가 아우라처럼 화려한 동시에 기품 있는 디자인을 자랑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 화사하게 빛나는 다이얼은 장미꽃잎처럼 순으로 양각 새겨진 후 실버도금 채리한 것으로, 그 위에 골드 도금 핸즈와 슬리드 골드 이클레,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더해 우아함에 방점을 찍었다. 산토나사의 블랙 옐라게터 레더 스트랩과 함께 제공하며, 편안한 스트랩 체인지 시스템을 갖춰 1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스트랩으로 쉽고 빠르게 교체 가능하다. 2천4백45만원. 모두 IWC, 에디터 이혜미

● sponsored by IWC

● sponsored by VAN CLEEF & ARPELS  
포토그래퍼 Erik Madigan Heck

다이아몬드와 그레이 메타보르필로 이루어진 2개의 알함브라 모티브를 세련한 매직 알함브라 로즈 골드 이어링 2천만원대, 그레이 메타보르필 펜던트가 매력적인 매직 알함브라 로즈 골드 롱 네크리스 9백만원대, 리오드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볼륨 있는 디자인의 백플리 다이아몬드 핑크 골드 링 2천39만원대, 정교한 골드 세공이 돋보이는 3개 라인의 백플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5천39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문의 1668-1906 에디터 이혜미



# the timeless elegance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하이 주얼러 반클리프 아펠.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를 아이코닉한 비즈 프레임과 진귀한 천연 스톤으로 재해석한 알함브라(Alhambra) 컬렉션은 동시대적인 우아함의 결정체다.

# viva lady

마치 사랑스러운 여인을 보는 듯 은화하고 아름답다.  
살바토레 페리가모의 로맨틱 비바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탈리아의 우아함을 추구하는 살바토레 페리가모 하우스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비바 라인인 브랜드를 오랜 시간 대표해온 비바 슈즈의 상징적인 리본 장식을 사랑스럽게 재해석한 컬렉션으로, 장인의 재능을 엿볼 수 있다. 더 크고 또렷해진 리본 장식을 백과 슈즈에 동일한 컬러로 적용해 동시대적인 미감을 드러내는데, 부드러운 소재와 감각적인 색감으로 비바 슈즈의 특징을 이어가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리처드 세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빌레리나 슈즈의 블록 형태 같은 미학적 완성도를 보인다. 문의 02-3430-7854

(우부터) 부드러운 송아지가죽과 목신한 촉감을 자랑하는 비바 보우백,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 1백50만원대. 샌수양한 토 리본이 돋보이는 비바 빌레리나 슈즈 80만원대. **살바토레 페리가모, 에디터 아주이**

● sponsored by SALVATORE FERRAGAMO

(왼쪽부터) **론진 마스터 컬렉션 40MM** 화이트 다이얼 위 블랙 아라비아 숫자와 블루 핸즈의 조합이 현대적인 이미지를 그려준다. 장인이 돋보이는 살바 빌리온 패턴을 적용한 다이얼 위 6시 방향에는 날짜를 함께 나타내는 문페이즈 창을 장착했으며, 무브먼트 L899 칼리버로 구동한다. 3백10만원. **론진 프라미루나** 지름 30.5mm의 보름달을 형상화한 동근 케이스가 특징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화이트 다이얼 위 최상의 VS-9 등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테스로 화려함을 한껏 강조한다. 쿼츠 무브먼트 L296을 사용했으며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가 자리한다. 1백90만원대.



# romantic days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오래도록  
향유하고 싶은 연인을 위한 커플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LONGINES

(왼쪽부터) **론진 1832**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서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가 특징인 컬렉션. 론진이 처음 탄생한 1832년을 컬렉션 이름으로 차용했으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적 코드를 가장 잘 드러낸다. 지름 40mm 베이직 다이얼에 아두운 곳에서도 가시성이 높은 슈퍼 루미노바를 입힌 일자형 인테스를 더했고, 6시 방향의 문페이즈와 날짜 창으로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L890를 탑재했으며, 30m 생활 방수 기능을 갖췄다. 2백90만원. **론진 프라미루나**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로즈 골드 콤비 브레이슬릿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모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자개 다이얼, 고전적인 로마자 인테스가 하이엔드 품격을 드러낸다. 가느다란 여성의 손목을 강조하기 위해 이상적인 지름 26.5mm 다이얼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을 담아 실용적인 면모도 역시 놓치지 않았다. 6백50만원대. 문의 02-3479-1940 **에디터 아주이**

# listen to perfume

향을 맡아보면 빠져들고, 스토리를 들어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궁극의 향수, 펜할리곤스.



## 이야기의 시작은

###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랜드의 창립자 윌리엄 펜할리곤은 영국 잉글랜드 서남쪽 끝, 콘월에 있는 펜겐스 출신이다. 이 작은 항구도시의 한 바버 슈에서 견습 훈련을 받았고, 1860년에는 런던으로 옮겨와 부티크 스파인 터키시 하맘에서 일을 시작했다. 윈스턴 처칠, 오스카 와일드, 러디어드 키플링, 페르시아 군주 등 유명인들이 그의 단골 고객이었다. 이곳에서 쌓은 경험과 영감으로 윌리엄 펜할리곤은 중독적인 향조의 하맘 부케라는 향수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힘입어 자신만의 가게를 열고 향수계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1902년에는 영국의 알렉산드라 왕비가 이 향수를 사용하며 더욱 유명해졌다. 이때는 창립자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윌터 펜할리곤이 사업을 이어받은 시기. 그는 이 인기를 타고 블렌하임 부케를 포함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여러 향수를 개발하며 컬렉션을 확장했다. 릴리 오브 더 밸리, 오렌지 블라썸, 엘리자베탄 로즈 등이 이때 조향한 것으로, 펜할리곤스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런던 코번트 가든에 위치한 웰링턴 41번가(Wellington Street 41)에는 오랜 전통을 지켜온 펜할리곤스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펜할리곤스는 감각적인 패키지와 디테일이 풍부한 향으로 영국 왕실의 인증인 로열 워런트(왕실 조달 허가증, royal warrants of appointment)를 보유하고 있는 향수다.

### 창의성에 영국적 유틸리티 한 방울을 떨어뜨린 향수

펜할리곤스의 향수 컬렉션은 크게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된다. 브리티쉬 테일즈 컬렉션과 트레이드 루트 컬렉션, 그리고 포트레이트 컬렉션이 그것. 먼저 브리티쉬 테일즈는 블레넘 궁전(Blenheim Place)에 얽힌 이야기와 이야기 속 인물의 향기를 담은 컬렉션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을 그린 루나와 엔디미온, 새빌 로 재단사의 작업실을 재현해낸 사토리얼 등이 이 컬렉션에 속한다. 가장 영국적인 감성과 고전, 그리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트레이드 루트는 결이 조금 다르다. 런던 부두에서 출발해 전 세계를 누빈, 19세기의 이국적인 수입품에 얽힌 모험 이야기를 향으로 표현했다.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여성이 사랑했던 진주와 실크 같은 고급 직물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버무린 엠프레사, 홍차와 어우러진 로테어, 겁게 피어 나는 신비한 장미를 담은 할페티 등이 이 컬렉션에 속한다. 가장 퇴폐적이고 화려한 향기 컬렉션이라 꼽힌다. 마지막으로 포트레이트는 19세기 말 영국 귀족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컬렉션이다. 귀족 중의 귀족 로드 조지와 그 친구들의 비밀스러운 삶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로드 조지를 비롯해 레이디 블랑쉬, 더 듀크, 클레테스틴 클라라 등 인물들의 성격과 라이프스타일을 향으로 표현했다. 한 폭의 명화 같은 패키지 디자인과 귀족적인 향기를 전달하는 조각과도 같은 보틀, 그리고 각 인물을 담은 목직인 골드 컬러 헤드가 특징이다. 문의 080-363-5454 에디터 장라윤



# sweet home

향기롭고 안락한 공간을 완성해줄 홈 프레이그런스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바이레도 코튼 포플린 롱 스프레이 캔들 라인 베스트셀러 향을 담은 롱 스프레이, 깨끗한 면과 라벤에서 영감을 얻어 블루 카라멜과 스위트 마스카 조화를 이루는 단정향 향을 구현했다. 250ml 15만8천원, 문의 02-3479-1688  
이슬 브라스 오일 비너스 스투디오 앤디 윌슨(Andy Wilson)이 디자인한 고급스러운 브라스 오일, 표준 사이즈의 무향 티라미 캔들과 액체 타입의 오일 비너스 렌즈 함께 사용한다. 21만원, 문의 1800-1987  
조 말론 런던 타운하우스 컬렉션 클로밍 앰버스 캔들 영국 고전주의 건축양식인 조지안 양식의 세련된 디테일을 차용한 무광 세라믹 캔들, 포근한 밤, 난로 앞에서 책을 읽는 장면이 연상되는 따뜻한 향이 특징이다. 300g 15만5천원, 문의 02-6971-3228  
프라이드 오브 내셔널 디퓨저 우아한 화이트 도자기 방에 푸른 자중해의 향을 옮겨 담았다. 베르가모트, 네롤리, 무화과 잎, 로즈, 일랑일랑 등 최상급 원료에서 추출된 다채로운 노트가 조화를 이룬다. 200ml 10만원, 문의 080-363-5454  
로브제 코발트 샌디 캔들 from 네타포르테 인테리어나 오버제르 손색 없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포슬린 캔들, 핑크 색채의 신성한 향이 공간에 가득 채운다. 238g 16만원, 문의 00798-44-341-351  
타니크 베이 샌디드 오일 우아한 불카인 로즈의 달콤한 블랙 카린트의 향이 어우러진 고제 롱 프레이그런스, 빙이나 수트케이스 안에 배치하면 방향은 아늑하고 인테리어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35g 7만8천원, 문의 02-3479-6049 에디터 이예미

1 포트레이트 컬렉션의 세안용 콘스탄스. 그녀의 당당한 존재감은 타디안과 피망 잎으로 스파이시하게, 매혹적인 면모는 비터 카라멜로 달콤하게 표현했다. 2 브리티쉬 테일즈 컬렉션의 블레넘궁 부케는 윈스턴 처칠의 시혼이기도 한 에디 말론의 공작의 의무를 받아 1902년에 제작된 향수다. 3 트레이드 루트 라인의 로테어는 외국의 고가한 물품을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 배속 뱃사의 이들을 만 향수, 자몽과 무화과 잎, 스모카향 향 등을 더해 특 신는 향으로 모험심을 표현했다. 4 19세기 재민스 거리(James Street)에 자리했던 펜할리곤스 매장. 5 1870년 재민스 거리(Jermyn Street)에 문을 연 펜할리곤스 첫 매장 내부.



© sponsored by PENHALIGONS

# editor's Pick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에 지칠 대로 지친 피부를 위한 극약 처방.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라 메르시에 플로리스 퀴아이트 레인스-피어링 쿠션 #1W1 아이브리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가능한 덜 자극적인 아이템을 선호하는 요즘, 쿠션 파운데이션도 예외는 아니다. 수딩 효과를 선사하는 알바 수련꽃 추출물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 피운데이션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했다. 15g 6만9천원. 문의 02-564-0055\_by 에디터 이주희

다음 루즈 다음 # 999 매일 노 메이크업으로 자는 요즘, 마스크를 벗을 일이 있을 때면 립스틱을 꺼내 얼굴에 생기를 더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다. 다음의 새 캠페인 속 나뭇잎 포드먼의 매혹적인 껍질을 보고 꼭 발라보고 싶었다. 이 제품은 보습하고 부드러운 볼벳 파우더와 글라스한 레드 컬러의 조합이 매력적. 게다가 리필 가능한 패키지로 선풍적 소장 욕구를 더욱 자극했다. 3.5g 4만8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이혜미

구찌 루즈 아래브르 사탕 25° 골드 레드 한 해를 사용하는 시점에 행운을 불러오는 다는 의미를 담은 레드 컬러로 재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 빈티지 메이퀸 튜브에서 영감을 받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라가 직접 그린 장식 패턴을 음각했다. 리베코 표지판 컬러 25는 그의 행운의 숫자다. 3.5g 4만8천원. 문의 02-3452-1921\_by 에디터 장미윤

AHC 유스 레스팅 리얼 아이 크림 포 페이스 20대 피부 환경에서 첫해엔 어린 피부의 비활성화는 메인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 아홉 번째 리뉴얼해 출시한 국민 아이 크림 시즌 9, 시즌 8 대비 더 작아진 알카리 피부 감수이 스테이블 보습과 영양 공급, 주름과 기미, 잔티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눈은 물론 얼굴 전체에 고루 퍼 발라도 좋다. 30ml 2만원. 문의 080-332-0855\_by 에디터 장미윤

통 브라운 09.27.65 오드 퍼퓸 #비버비 연슬루트 거울이 더더욱 빛을 발하는 베틀 베르 향을 순수하고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아이템. 목직하고 스모키한 향조가 주는 모던하고 중독적인 향이 매력적이다. 섀도우 향을 입고 살았던 이를 베이스로 다른 향수의 레이어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베틀베르가 본연의 향을 복원해주어 보다 풍성한 향을 느낄 수 있다. 75ml 43만원. 문의 02-3213-2253\_by 에디터 이주희

이리나 뷰티 내오 누드 파운데이션 #3 좀처럼 한 제품에 정착하지 못하던 에디터가 지난 인생 파운데이션, 수분 크림을 바른 듯 가볍고 촉촉한 텍스처가 일품이다. 뽕치 없이 고르게 발라 타코난 듯 건강한 피부를 연출해주는데, 설페한 포플러가 편안하게 밀착해 장시간 메이크업도 끄떡없다. 마스크라도 덜 떨어야 백 점 만점에 백점을 주고 싶다. 35ml 5만9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이주희

조 말론 런던 카디푸저 피오니 앤 블러쉬 스키테리 리필 처음 구입한 자에게 선물 할 제품을 찾던 중 조 말론 런던의 차용을 방황해 출시 소식을 들었다. 송중구에 부 착할 수 있는 알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케이스를 구입하면 세 가지 향의 리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따라 다른 무드의 드라피브를 즐길 수 있다. 에디터가 선택한 리필은 민낯한 피오니에서 영감을 얻은 플로랄 향. 여성 운전자에게 추천한다. 카디푸저 하우스 6만9천원, 리필 4만6천원. 문의 02-3440-2750\_by 에디터 이혜미

프래쉬 클루저 트리트먼트 토너 사무실 허더 때문인지 청상사조쯤 되면 피부가 속부터 말기 시작해, 수분 크림을 자꾸 덧바르게 된다. 이 제품은 24시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토너로, 피부 건조는 물론 이온 인해 넓어지는 모공과 기미까지 예방 효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 세안 후 화장실에 물이 사용한 날은 확실하게 다음 단계 제품도 잘 흡수되고, 사무실에서도 토너 시간까지 거든다. 200ml 6만5천원. 문의 080-822-9500\_by 에디터 장미윤

로아비 리얼 카렌듈라 수딩 마스크 진정 및 수렴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카렌듈라 꽃잎을 그릇에 담은 수딩 마스크. 피부가 예민하다고 느껴질 때 드물게 버리고 부드럽게 씻어내면 한결 진정된 듯느낀다. 풍부하게 느껴지는 설페한 시트러스 향에 기분이 좋아진다. 100g 5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이주희

시클리 워터 블랑 라 로시옹 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한 뒤 기초 첫 단 계에 비하는 제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세안 후 피부를 준비시키는 이 제품은 말라간 포물라가 주각적으로 스며들어 촉촉한 바탕이 완성되는 걸 느낄 수 있다. 미세 각질 제거 활성 성분을 함유해 꾸준한 사용이면 광채와 균일함도 얻을 수 있다고. 150ml 17만원. 문의 080-549-0216\_by 에디터 이혜미

탐버린즈 손 속속 7 허투 열 번은 족히 사용하는 핸드 세너. 타이저, 수분을 빼앗아 피부가 가칠고 푸상해지는 게 고인도 있는데, 강력한 타이저로 주목받는 브랜드 탬버린즈에서 출시하는 이 제품은 에탄올로만 구성된 아미 세너 타이저와 달리 보습에 효과적인 베틀 수렴을 함유했다. 때문에 사용한 후에도 손이 덜 건조한 느낌. 무엇보다 아토피와 코코넛이 어우러진 은은한 향이 남아 매우 만족스럽다. 30ml 6만9천원. 문의 1644-1246\_by 에디터 이혜미

달바 화이트 트러플 92 어드밴스드 앰플 기초 체력이 중요하듯 피부도 마찬가지다. 촉촉하고 매끄럽게 발라는데 마무리는 탄력을 증가주는 듯 아주 쏠쏠해 기분을 강화해주는 듯한 느낌. 항산화에 탁월한 트러플 성분들 92%가 함유해 믿을 수스럽다. 자 동 스포츠 용기 로 뚜껑을 열면 1회 사용에 딱 알맞은 양이 흘러 흘러준다. 12ml X 212번. 문의 070-7714-8428\_by 에디터 장미윤

타타지 더오버스킨 베리어D 인텐스 크림 수분 크림은 행지 아니고, 영양 크림은 다소 부담스러운 속조지 지방 피부 타입에 추천한다. 핀테일과 스텝된 성분이 피부에 딱한 보습감을 전달하고, 프로비타민 D 성분이 힘을 부어준다. 피부 장벽과 근접한 3:1:1 배합으로 구성된 세라미드, 글리세린, 지방산은 물론 체내 보습 성분을 생성해주는 빌라그리까지, 피부 건강을 위한 타타지의 진정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100ml 3만5천원. 문의 1811-9415\_by 에디터 이주희



# SHOWROOM

## LIFESTYLE



고역우도자기 갤러리형 온라인 소품용 프리미엄 갤러리형 온라인 몰(smartstore.naver.com/kodukwoo\_gallery)에서 3백여 점 이상의 고역우도자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 인정받은 작가의 소장 가치가 높은 도자 작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희소성 있는 제품을 갖춘 것은 물론 소비자의 스토 창구가 더욱 폭넓어져 큰 만족감을 줄 듯하다. 문의 010-4574-2627

## BEAUTY



자랑스러워 란데리 오드 퍼퓸 말레짐즈 자랑스러워 하우스 최초의 언더그라운드 플리 란데리 오드 퍼퓸 컬렉션에서 다가오는 봄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말레짐즈를 선보인다. 이집트에서 금광을 얻는 오렌지 블라섬은 공성 재배의 수확으로 얻는 지속 가능한 원료다. 케이스와 패키지를 포함한 향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생산한다. 문의 080-801-9500



랄프 로렌 폴로 오드 투일렛은 1978년에 탄생해 오랜 시간동안 사랑받고 있다. 보통의 그린 컬러는 톱 노트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풀 내음을 표현했고, 곡선 실루엣으로 랄프 로렌의 클래식한 무드도 담았다. 3040의 유연하고 자상감 있는 룩을 완성해 줄 향수로 제격이다. 문의 02-6004-0220

론진 스포릿 컬렉션 스포릿 컬렉션은 육·해·공을 정복한 전설적인 개척자에게서 받은 영감을 담은 컬렉션이다. 이번에 선보인 컬렉션은 비행 역사에 모던한 미학 코드와 현대 기술을 결합했다. COSC 인증 살리온 헤어 스프링을 갖춘 독점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스틸 케이스는 사티과도 같은 질감을 선사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02-3479-1940

바세론 콘스탄틴 미스터 포터 익스클루시브 미스터 포터(www.mrporter.com)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3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에비 로드 스텝 디오에서 출시한 피프티스(FIFTYSIX) 컬렉션의 데이-데이트 모델에 개별 번호를 새겨 더욱 특별하다. 페트를 블루 컬러 다이얼에 세피아 브라운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해 도시적이면서도 레트로한 무드가 느껴진다. 문의 02-3446-0088

프리드 커를 브레이슬릿 프리드가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한 기프트 셀렉션을 선보인다.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이 빛나는 포스텐 커를 브레이슬릿은 허우스를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다. 세일링 챔피언이었던 프리드 사무엘의 장님이 애를 위해 해상 케이블을 이용해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랑의 끈을 상징해 연인에게 줄 선물로 제격이다. 문의 02-514-3721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마스터 크로노미터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항자성 무브먼트를 장착한 최신 버전의 문워치 컬렉션을 만나보자. 이 새로운 무브먼트는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이 착용한 4세대 문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대체로운 요소를 더했다. 문의 02-511-5797

IWC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 브레이슬릿 버전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이 국내에 입고되었다. 새로운 브레이슬릿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정교한 버터플라이 폴딩 버클을 적용해 착용감이 좋고, 유광 폴리싱과 사틴 마감 처리해 현대적이다. 문의 02-3440-5876

반클리프 아펠 레이다 페어리 로즈 컷 다이아몬드로 묘사한 요정의 얼굴이 돋보이는 뉴 페어리 워치. 최초로 플리크 아 주르 에펠과 그리저요 에펠을 함께 사용해 날개 부분의 음영을 만들고 셀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정교하게 조립해 완성했다. 부드러운 원형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는 전체 워치 실루엣을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문의 1688-1906

볼가리 벨란타인데이 기프트 셀렉션을 매력적인 핑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은 주얼리부터 아이코닉한 워치, 핸드백 및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출시되어왔다.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연중 가장 로맨틱한

올리데이를 위한 커를 아이템으로 세르펜티 주얼리를 제안한다. 로마에서 받은 영감과 장인 정신이 어우러진 볼가리만의 감각적인 미학을 선물해보자. 문의 02-2056-0170

IWC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 브레이슬릿 버전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이 국내에 입고되었다. 새로운 브레이슬릿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정교한 버터플라이 폴딩 버클을 적용해 착용감이 좋고, 유광 폴리싱과 사틴 마감 처리해 현대적이다. 문의 02-3440-5876

반클리프 아펠 레이다 페어리 로즈 컷 다이아몬드로 묘사한 요정의 얼굴이 돋보이는 뉴 페어리 워치. 최초로 플리크 아 주르 에펠과 그리저요 에펠을 함께 사용해 날개 부분의 음영을 만들고 셀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정교하게 조립해 완성했다. 부드러운 원형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는 전체 워치 실루엣을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문의 1688-1906

볼가리 벨란타인데이 기프트 셀렉션을 매력적인 핑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은 주얼리부터 아이코닉한 워치, 핸드백 및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출시되어왔다.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연중 가장 로맨틱한

볼가리 벨란타인데이 기프트 셀렉션을 매력적인 핑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은 주얼리부터 아이코닉한 워치, 핸드백 및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출시되어왔다.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연중 가장 로맨틱한

올리데이를 위한 커를 아이템으로 세르펜티 주얼리를 제안한다. 로마에서 받은 영감과 장인 정신이 어우러진 볼가리만의 감각적인 미학을 선물해보자. 문의 02-2056-0170

IWC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 브레이슬릿 버전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이 국내에 입고되었다. 새로운 브레이슬릿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정교한 버터플라이 폴딩 버클을 적용해 착용감이 좋고, 유광 폴리싱과 사틴 마감 처리해 현대적이다. 문의 02-3440-5876

반클리프 아펠 레이다 페어리 로즈 컷 다이아몬드로 묘사한 요정의 얼굴이 돋보이는 뉴 페어리 워치. 최초로 플리크 아 주르 에펠과 그리저요 에펠을 함께 사용해 날개 부분의 음영을 만들고 셀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정교하게 조립해 완성했다. 부드러운 원형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는 전체 워치 실루엣을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문의 1688-1906

볼가리 벨란타인데이 기프트 셀렉션을 매력적인 핑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은 주얼리부터 아이코닉한 워치, 핸드백 및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출시되어왔다.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연중 가장 로맨틱한

볼가리 벨란타인데이 기프트 셀렉션을 매력적인 핑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은 주얼리부터 아이코닉한 워치, 핸드백 및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출시되어왔다.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연중 가장 로맨틱한

## JEWEL & WATCH

## FASHION



알렉산더 맥퀸 핑크 펄프스 2021년 S/S 프리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핑크 스타일 펄프스. 애중의 핵심 콘셉트인 핑크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스티드 장식 이 감명하다. 시그니처인 핑 톤은 1950년대 감성을 드러내는데, 이브닝 룩뿐 아니라 캐주얼한 룩에도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6905-3472

토즈 2021 S/S 여성 컬렉션 지금까지 브랜드가 추구해온 라이프스타일에 창조적인 해석을 더한 2021 S/S 여성 컬렉션. 촉감이 부드러운 재킷과 주름 디테일을 더한 롱 셔츠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발테르 카피프노만의 독특한 감성이 느껴진다. 액세서리는 오렌지 노후유가 담긴 수공예 가방으로 다양한 디테일을 기미해 토즈의 클래식함을 실었다. 문의 02-3438-6008

보테가 베네타 더 트리아앵글 프리 컬렉션 워드르브 01'의 트리아앵글 백은 기존 클러치 백에 톱 핸들과 슬더 스트랩을 더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높여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누드 톤의 아몬드 컬러와 짙은 와인빛의 그래픽, 선명한 녹색 팽팽, 그리고 밝은 감성의 옐로 버터컵 컬러까지, 총 4가지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7682

파비아나 필리피 2021 S/S 컬렉션 파비아나 필리피의 2021 S/S 컬렉션은 1990년대 영국의 아우터에서 영감을 디자인했다. 2월에는 테크니컬 소재와 페미닌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아우터와 스카트를 제안한다. 특히 스카트는 허리에 스트링을 더해 편안하고, 앞선에는 모노리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문의 02-6905-3626

살바토레 페라기모 트리폴리오 백 새롭게 선보이는 트리폴리오 백은 사다리꼴 보드에 간치니 로고로 마무리한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심플한 블랙부터 로맨틱한 그린과 살몬 컬러까지 다양한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430-7854

알렉산더 맥퀸 핑크 펄프스 2021년 S/S 프리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핑크 스타일 펄프스. 애중의 핵심 콘셉트인 핑크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스티드 장식 이 감명하다. 시그니처인 핑 톤은 1950년대 감성을 드러내는데, 이브닝 룩뿐 아니라 캐주얼한 룩에도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6905-3472



# BVLGARI

ROMA